음주교통사고도 광주가 1위

지난해 차 1만대당 20.5건 … 전국 평균은 13.4건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 가장 많아

'전국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도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음주운전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지난 31일 도로교통공단의 '2010년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20.5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평균 13.4건) 중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부산은 9.1건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26.9건 ▲북구·광산구 20.0건 ▲동구 18.8건 ▲남구 17.5건 순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의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도 14.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시·군별로는 ▲장흥 23.9건 ▲광양 23.6건 ▲순천 23.5건 ▲영암 23.4건 ▲나주 22.7건 ▲목포 22.4건 ▲강진 22.3건 ▲무안 22.1건 ▲진도 18건 ▲여수 16.9건 ▲화순 15.1건 ▲구례 14.2건 등 절반이 넘는 지자체에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음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의식부족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2%로 전국(평균 31.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 발생 비율 역시 전체 사고의 19.6%를 차지해 전국 평균 11.4%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남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전체 사고의 8.8%로 전국 평균(5.6%)을 크게 웃돌은 물론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노인 사망자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3.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교통사고로 126명이 사망하고, 1만4618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435명이 숨지고, 1만8610명이 부상했다.

한편,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도 광주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가 156.13건으로 전국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전남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0년, 자동차 1만대당)

〈자료:도로교통공단〉

임건우 전 보해 회장 13시간 조사 후 귀가

혐의 내용 부인 … 광주지검, 사기 혐의도 수사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이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9일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불법 대출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임 전 회장은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7일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도 용인의 지점, 서울 임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사의 회계 자료와 주식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왔으며, 보해 저축은행 자금이 보해양조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임 전 회장은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 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지난 6월 부동산 업자 김모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소됐다.

김씨는 "임 전 회장과 오 대표가 지난 2월 금감원에 제출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주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춰 은행이 정상화되는 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채권액 600억 원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임 전 회장 등이 BIS 비율을 높여 금감원 감사를 피하고 영업정지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해 저축은행 지분은 보해양조 40%, 임 전 회장 본인 27.6% 등으로 임 전 회장 측이 75% 이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청년층 유혹 상품강매 불법 다단계 특별단속 경찰, 9월까지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층을 유혹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 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고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유지 조건으로 강매하며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등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 夜 벼룩시장 시민들이 직접 만들거나 집에서 쓰던 중고품들을 내놓고 판매하는 '광주 야(夜) 벼룩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쿤스트할레 광주에서 열렸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쿤스트할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식당 여주인 둔기 살해

영광경찰 40대 구속

영광경찰은 지난 31일 식당 여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이모(42·고창군)씨를 강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새벽 2시께 영광군 법성면에 사는 박모(여·63)씨의 A식당에 침입한 뒤 잠을 자던 박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근 PC게임방에서 게임을 한 뒤 박씨의 A식당을 지나던 중 평소 현관 출입문이 잠가져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박씨와 일면식이 없고 마땅한 직업 없이 PC게임방에서 지내온 점으로 미뤄 돈을 훔치러 A식당에 침입했다가 박씨가 잠에서 깨 소리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집추궁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추락 아시아나 조종사 30억 보험 가입

생사 여부 확인 안돼

지난 28일 새벽 제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47 화물기에서 실종된 승무원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31일에도 계속됐지만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한 조종사가 30억원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화물기의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 6월부터 상당수 보험상품에 가입해 현재 가입된 보험이 종신보험 2개, 손해보험 5개 등 모두 7개다.

사망시 이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3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고 원인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개인이 어떤 보험에 얼마나 들었는지 여부는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조종사는 위험직종이라 일반인에 비해 보험을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가 비상상황에서 회항하려 노력했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조종사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상식 밖"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광주천 추락

동림동서 … 운전사 숨져

지난 29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광주천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운전사·변모·70)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광주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택시가 가드레일을 받고 공중으로 떠올라 하천으로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택시의 영상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전남교육청·대학 직원들

법인카드 실적비 제돈처럼 썼다

회식비·해외여행 경비로

법인카드 사용실적으로 받은 공금 성격의 돈을 회식비 등으로 썼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직원과 전남대 등 대학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지난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비리점검 결과 법인카드 사용의 인센티브로 금융기관이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각각 제공한 79만원,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0만원~200여만원 지원을 받아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전남대(1명), 전남교육청(4명), 목포대(1명)에 인사조치를 주문했다.

이밖에 순천대(2명), 전남대(7명) 소속 직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00만원~2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했음에도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들에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은 해당기관의 지정금고나 주거래 은행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대 행세 여고생 남친집 물품 훔쳐

쌍나팔

○…10대 여고생이 짙은 화장으로 나이를 속여 20대 중반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가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1년 J(15)양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사는 남자친구 Y(28·광주 모 대학교 3년)씨의 집에서 Y씨 어머니의 손목시계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J양은 평소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하고 다니면서 20대 중반 여성 행세를 해왔는데, 경찰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나이를 속였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호남유일의 합격전문반 개설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
7월 23일 첫진도 개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천명 대폭증원
사회복지직 특별반 모집 개강 8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